

태풍 ‘갈매기’ 필리핀 중부 강타…최소 26명 사망

구호지원 출동 필리핀 공군 헬기도 추락

태풍 ‘갈매기’가 4일(현지시간) 필리핀 중부를 강타,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0만명 가까이가 이재민이 됐다.

필리핀 민방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지속 풍속 시속 130km, 최대 풍속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갈매기가 세부주 등 필리핀 중부에 상륙했다.

세부시 일대에 24시간 동안 18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 세부주에서 21명이 사망하는 등 갈매기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방위 당국이 AFP 통신에 전했다. 민방위 관계자는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대부분은 익사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세부주와 가까운 보홀주에서는 한 남성이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홍수로 여러 마을이 잠기고 수많은 주민이 고립돼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세부시 주민 돈 델 로사리오(28)씨는 “물이 너



4일(현지시간) 태풍 ‘갈매기’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초토화된 필리핀 중부 세부주의 모습.

/EPA=연합뉴스

무 빨리 불어났다. 오전 4시쯤에는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올 수 없

었다”면서 “28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이번 일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단연코 최악”이라고 AFP

에 밝혔다.

그웬돌린 팡 필리핀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AP

통신에 “건물 지붕과 집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의 신고를 무척 많이 받았지만 (구조가) 불가능하다”면서 “잔해가 너무 많고 차들이 떠다니는 것도 보여서 홍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갈매기 피해 구호·복구 작업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필리핀 공군 소속 수퍼휴이 헬기가 남부 민다나오섬 아구산델 수르주에 추락, 헬기에 탄 공군 요원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AP가 전했다. 필리핀군은 이들의 소재를 파악중이라면서도 생존자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기상 당국은 향후 24시간 안에 저지대나 해안 지역에서 최대 3m 이상에 달하는 폭풍해일이 발생,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태풍 접근을 앞두고 당국은 주민 38만7천 여명을 대피시켰다.

필리핀 민간항공국에 따르면 이날 태풍으로 300여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

갈매기는 오는 5일 아침 남중국해를 통과해 베트남 중부 지역으로 항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상 당국은 전했다.

/연합뉴스

美 조지아주 델루스 시의원에 한국계 새라 박 당선

최대 한인 거주지에 첫 한인 정치인 선출

미국 조지아주 한인 중심지인 델루스의 시의원에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사진) 씨가 당선됐다.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방선거 개표 결과 박 씨는 델루스 시의원 1 지역구에서 총투표 2천573표 가운데 과반인 1천388표(54%)를 득표했다. 박 씨는 출마 선언 2개월 만에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시의원과 사파넷 아메드 후보를 제



치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델루스 시에서 한국계로 처음 당선된 박 씨는 내년 초 시의원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조지아주 주도(州都) 애틀랜타 북부에 위치한 델루스 시는 H마트 등 한인 상권과 인구가 집중된 조지아주 최대 한인 거주지이다. 조지아

주는 기아자동차 웨스트포인트 공장과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1998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을 맡아 2021년 애틀랜타 스과 총격 사건, 올해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사회 입장을 밝혔다.

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日, 곰 습격 잦은 아키타현에 자위대 투입…퇴치 활동 지원

일본 정부가 마을로 내려오는 곰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혼슈 북부 아키타현에 5일부터 자위대원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이날 오후 아키타현 북부 가즈노시와 협정을 맺고 지원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스키 겐타 아키타현 지사가 마을로 내려오는 곰을 지자체 행정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으며 방위성에 자위대 파견을 요청한 때 따른 것이다.

이에 방위성은 아키타현 아키타시에 있는 육

상자위대 아키타주둔지의 대원을 곰 퇴치 활동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자위대원들은 대형 닛 설치, 포획된 곰의 운반 등 작업에 투입된다.

자위대는 아키타현과 조율을 거쳐 가즈노시를 시작으로 준비 상황에 맞춰 투입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위대원이 지진 같은 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곰 피해 때문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방위상은 “자위대의 본래 임무는 국방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관점

에서 사태의 특이성도 감안해 필요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원할 지역의 준비가 갖춰지는 대로 차례차례 투입할 것”이라고 전날 말했다.

사태의 특이성은 무엇보다 주민 생활권에 출몰하는 곰으로 인해 많은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일본에서는 아키타현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마을을 습격하는 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지난 4·9월 지자체나 경찰 등이 보고한 곰의 출몰 건수는 2만79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1.3%나 늘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민심 풍향계’ 美버지니아 주지사 민주당 탈환

민주당내 중도성향 스펀버거 당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째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가늠할 풍향계로 주목받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4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날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AP통신은 민주당 후보인 예비계일 스펀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원석 얼-시어스 부지사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득표율은 34% 개표 기준 스펀버거 전 의원 54.5%, 얼-시어스 부지사 45.3%다.

현직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으로선 지사 자리를 탈환하게 됐다.

버지니아에서 여성이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6세인 스펀버거 전 하원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버지니아 7선거구에서 3선을 지냈으며 그 전에 중앙정보국(CIA) 근무 경력이 있다. 하원의원 시절 당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 일부를 반대하는 등 민주당 내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얼-시어스 부지사는 자메이카에서 태어난 이

민자 출신이며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계속 뒤처지면서 약세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에 주목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이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수도 워싱턴DC와 접한 버지니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 공무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유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계속 승리해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한 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붙은 작년 대선에서 그 격차가 좁혀진 데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글렌 영킨 현 주지사가 당선되는 등 중도 성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60플 라익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